**누가의 사도행전 공부 – 제 5회(11/5/2017, 한사랑선교교회)**  
**I. 예루살렘교회와 그 주위로 확장되는 예수님의 교회 (1:1 - 12:25)**  
1. 예루살렘교회 (1:1-7:60)  
  
1.5.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방언을 말하게 하심 (2:5-13)  
  
1)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만든 소리가 예루살렘방문자들과 거주민들의 관심을 가지게 하였다. 이리하여, 당시에 전 세계에서 모였던 (15개국) 유대인들과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기적적으로 제자들에게 오신 성령님을 증거케 되었다.  
  
  
2)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며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에게는 저주로 언어의 혼란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창세기 11:7-9), 제자들에게는 여러 나라의 언어로 같은 내용을 말하게 하셔, 모여든 사람들이 이를 이해하며 듣게 되었다. 바벨탑 당시에는 그들이 배우지 않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 서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졌으나, 오순절에는 제자들이 배우지 않고도 다른 나라말들을 쓰게 되었지만, 되려 듣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게 되었다. 바벨탑의 혼동은 저주였으나, 오순절의 외국어 말하게 되고 그를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게 된 것은 복이었다.  
  
  
3)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과 어린양을 찬송케 될 것이다.  
  
  
4) 제자들에게 왔던 사람들의 반응은 이러했다: 어리둥절하고, 감탄하며, 또한 놀랬다.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나라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감탄했으며, 그들이 자기나라 말로 하나님의 능하신 행적을 말하기에 듣고 놀랬다.  
  
  
5) 방문자들은 제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적을 들었다. 이 방문자들은 계속하여 이런 현상에 감탄하면서도, 스스로의 생각이 혼란스러워졌다.  
  
6) 여기서 하나 확실한 점은 이러하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면, 우리가 스스로를 조절하며 살 수 없게 된다. (사무엘상 19:23,24) 그렇기에, 성령 충만하여 외국어들을 말하던 제자들을 어떤 방문자들은 그 언행으로 보건대 술취하여 스스로도 가늠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며 비웃었다.  
  
생각할 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요 그 교회의 지체들로서 우리는 성령 충만과 그 분의 지배를 받기를 간절히 자원하고 바라는가?  
  
  
STUDY ON THE LUKE’S ACTS OF THE APOSTLES -5 (11-5-2017, GLMC, Minneapolis, MN)  
  
  
I. The Church of Jesus in Jerusalem and Its Expansion to Its Vicinity (1:1-12:25)  
  
1. Church in Jerusalem (1:1-7:60)  
1.5. The Holy Spirit Making the Disciples Speak Foreign Languages in Jerusalem on Pentecost (2:5-13)  
  
1) The commotion that the inner group disciples made got the attention of the visitors to Jerusalem and its residents drawn to them. Thus, the miraculous coming of the Holy Spirit was witnessed in Jerusalem by Jews and the Greek proselytes from all over the world (at least 15 different countries).  
  
2) The same God who cursed and confused the language of the builders of the Tower of Babel (Genesis 11:7-9) made the disciples speak the different foreign languages to let various nationals understand what they heard. By then those builders spoke different languages without any learning experiences and were not able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On the contrary, this time around, the same Holy Spirit made the disciples speak different languages without any learning experiences, yet those hearers understood what they heard in their own native languages. The former was a curse, and the latter was a blessing.  
  
3) In the new heaven and the earth, there will be a multitude of nations yet all will speak same language to praise God and His Lamb.  
  
4) The response of those visitors was like this: Bewilderment, amazement, and astonishment. Each one heard the disciples speak in their own native languages, so bewildered. These Galileans who were somewhat looked down by the residents in Jerusalem spoke those visitors’ native languages as if they had learned to speak those foreign languages, so the hearers were amazed and astonished by such a miracle.  
  
  
5) What they heard was the mighty deeds of God. The visitors continued in amazement and great perplexity. Some of them were just at loss, others were mocking at the disciples.  
  
  
6) One thing for sure is that when the Holy Spirit took possession of the disciples, and filled them, they could not control over themselves.(cf.1 Samuel 19:23,24) That’s why, to the eyes of some outsiders, they sounded and acted like drunkards under an alcoholic influence.  
  
  
Things to Ponder:  
As a church and its members, are we earnestly willing to be under the influence of the Holy Spirit?